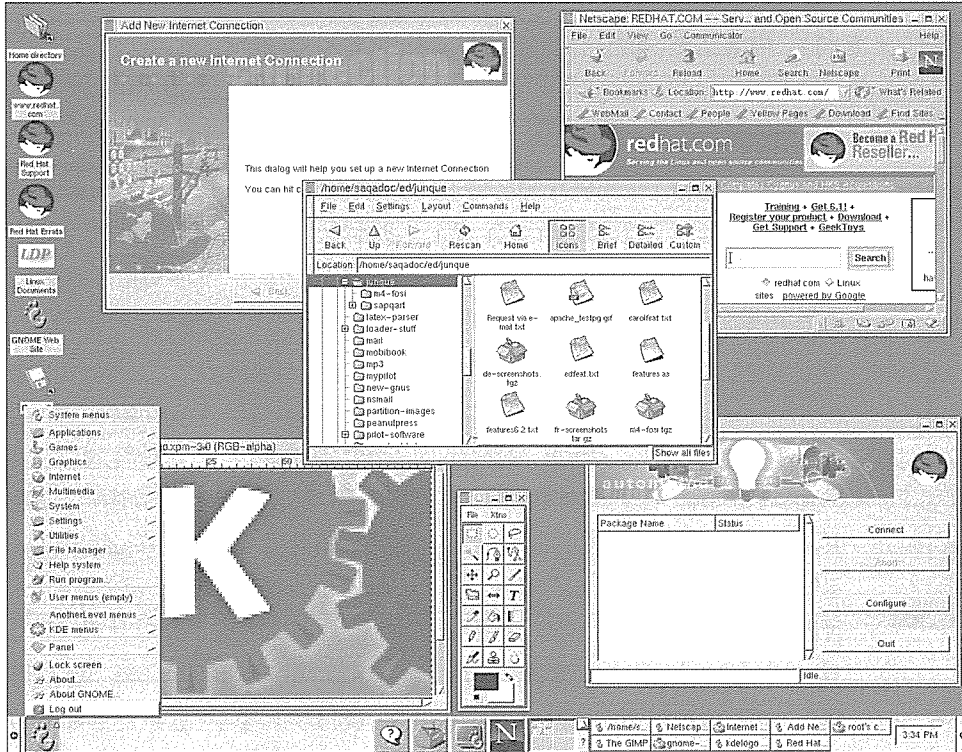


리눅스 진영에 실리는 힘

- 리눅스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극적인 IBM의 행보



리눅스를 선택하는 고객은 운영상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주된 선택이유로 꼽았지만, 여기에 풍부한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받으면 효율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을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DB2 데이터베이스는 IBM의 z시리즈 서버군을 이용하려는 사용자에게 신속한 업무처리와 효율적인 비용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집중화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도 적합한 솔루션이다. 철강 및 주물의 제조업

체인 그레드 파운드리사(Gred Foundries)는 분산된 상당수의 서버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z시리즈에 리눅스를 올려 DB2를 연결해 사용하는 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관리 비용 및 접속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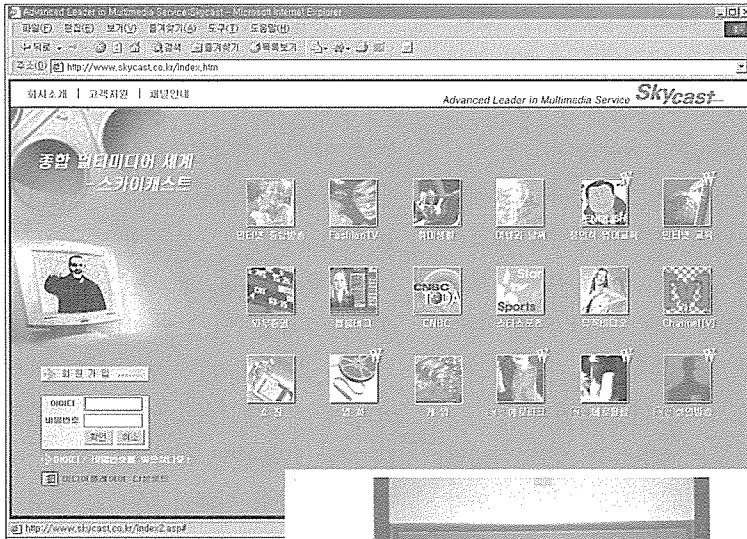
IBM은 인텔 기반의 리눅스용 DB2 유니버설 데이터베이스와 리눅스 메인 프레임에서 구동되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메인프레임용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소프트웨어 등의 지원용 소프트웨어 3종을 발표해 리눅스 데이터

베이스의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써 리눅스는 핸드헬드 장비에서 메인 프레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IT시장 전문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지난해 1백30만대의 서버가 리눅스 운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리눅스는 2004년까지 연 28%의 성장률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눅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속도는 더욱 빨라, 예를 들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2000년 현재 3천만달러 규모에서 2004년 34억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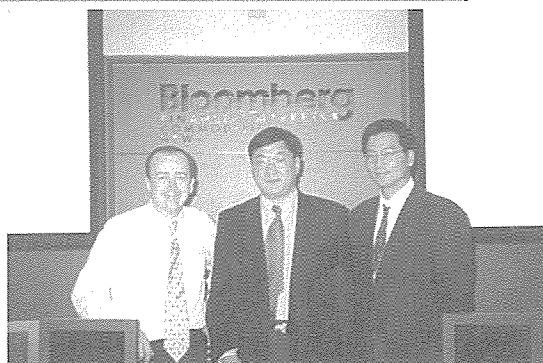
IBM의 리눅스 지원전략은 칼데라를 비롯하여, 레드햇, 수세, 터보리눅스 등 리눅스 진영의 선도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들 주요 리눅스 개발업체는 오랫동안 IBM이 제공하는 리눅스 기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지원해왔으며 리눅스 진영의 입지를 넓히는데 기여했다.

위성을 이용한 고품질 인터넷방송시대 개막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고품질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시작돼 답답한 전송속도에 제한을 받아온 이용자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인터넷 방송을 볼 수 있게 됐다. 최근 위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업체 스카이캐스트(대표 한승섭, www.skycast.co.kr)는 접속자 수에 관계없이 고품질로 기존의 인터넷 방송이나 공중파 방송을 전송해주는 위성전송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카이캐스트는 앰펙4 동영상 압축 기술과 무궁화위성의 광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영상데이터를 전송하므로 500~700kbps의 고품질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할 경우 320×240 해상도의 작은



화면에 만족해야 했지만, 스카이캐스트의 위성수신방송은 모니터 화면에 꽉찬 크기의 영상을 제공해 TV와 비슷한 수준의 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 동시에 인터넷망으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즉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원하는 네티즌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통신 인프라가 취약한 국내 인터넷 방송국에는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

스카이캐스트의 한승섭사장은 "위성으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지상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궁화 위성 2호 중계기를 임대하여 품질 높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카이캐스트는 국내의 콘텐츠 제공업체와 손잡고 엔터테인먼트, 증권, 교육, 쇼핑 등과 관련된 서비스로 네티즌들의 다양한 욕구를 소화할 예정이다. 전 세계 뉴스와 실시간 증권 정보를 24시간 방영하는 경제뉴스 방송인 블룸버그 TV, 20여개국 대사관에서 제공한 각국의 여행정보 서비스, 기존의 우수한 인터넷 방송들을 모아 보내는 통합 인터넷 방송 등은 기존의 위성 서비스와 차별화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다.

이로 인해, 이용자는 버퍼링 없는 안정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양방향 콘텐츠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즉, 증권뉴스를 보면서 홈트레이딩을, 홈쇼핑 채널을 보면서 온라인 쇼핑을, 여행 채널을 보면서 해외호텔에 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랙티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위성 수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스카이캐스트는 위성수신 안테나가 구비된 사이버 아파트를 비롯해 홈 PNA 사업자, LAN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위성수신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메일을 통한 정보 유출, 대책은 없나

- 정보통신부, 보안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나서

기업체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 K씨는 이메일을 발송할 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보안상의 이유로 회사에서는 외부로 발송하는 이메일의 파일첨부기능을 제한해 두었기 때문이다. 회사의 주요 정보가 이메일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기에 K씨는 더욱 씩씩하다.

위의 예는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런 우려를 해소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만 하더라도 현재 10여개 업체가 이메일 보안시스템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메일 보안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메일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된다 해도 제3자가 해독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 유출에 따른 업무상 기밀이나 개인의 사생활이 그대

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이들 제품을 이용하면 이메일 뿐 아니라 첨부되는 파일까지 암호화해 관리할 수 있어 한결 유용하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늘어나는 이메일 이용률에 비해 부족한 이메일 정보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국내 이메일 보안 시스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한 이메일 이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먼저 각 보안 이메일 시스템이 업체별로 서로 연동이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기피하는 점을 감안해 상호연동 기술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업체·연구소·학계 등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 국제표준에 맞는 연동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서명법에 의한 국내 공개키 기반구조 기술표준과 기준을 반영해

국내 인증서비스와의 상호 호환성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메일 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메일 취약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을 중앙부처, 공공·민간기관 등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각 업체의 보안 이메일시스템의 성능을 소개하는 '보안 이메일 시연회'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주관으로 지난 12월12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에는 보안 이메일제품 개발업체인 이니텍, 장미디어, 니츠, 세넥스 테크놀러지, 소프트포럼, 드림시큐리티, 지란지교소프트 등 7개 업체가 참여, 각 시스템에 대한 기술특성 소개와 함께 보안 이메일 송수신 과정과 수신·생성된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등을 직접 시연했다.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라 인터넷 이용 격차 심화되

인터넷의 대중화, 인터넷의 생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득과 교육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인터넷 사용의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자료가 최근 발표됐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회장 전용덕)와 IMResearch(소장 이두희)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2000 FALL KNP 세미나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웹사이트

2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 사용의 격차' 문제가 국내에서도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보고됐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자주 찾는 국내 웹사이트 25개를 선정해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2만3천7백41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자는 20~30대의 사용자 중심에서 초

등학생과 50대 이상의 연령층에까지 급속히 넓혀지고, 직장인과 학생 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도 정보 콘텐츠, 커뮤니티 활동, 게임, 온라인 쇼핑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로써 활용되고 있음이 뚜렷

이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탐색과 구매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콘텐츠의 내용에서도 저소득·저학력 사용자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수준의 차이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을 비교해보면, 고소득 사용자는 저소득 사용자에 비해 쇼핑(50.4%), 뉴스(64.4%), 증권투자(19%), 동호회(35.4%), 경매

(20.8%)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각각 69.5%, 44.2%를 보여 온라인 구매력에서도 격차를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차이는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쇼핑(48%), 뉴스(70.7%), 증권투자(19.8%), 은행(37.3%), 경매(18.3%)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온라인 구매경험에 대해서는 고학력자의 65.1%, 저학

력자의 33.7%가 '있다'고 응답해 교육수준에 따른 구매력의 차이도 드러났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수가 1천6백만명을 넘은 현재 인터넷은 생활의 일부로써 이용되고 있지만, 사용자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인터넷 사용행태는 점차 다양해지고 또 격차도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어떤 사용자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IT업계 종사자가 뽑은 2000년 10대 뉴스

- 나모인터랙티브와 안철수연구소 2백32명을 대상으로

경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IT업계에서는 2000년을 마감하며 어떤 사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인식할까? 지난 11월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사 나모인터랙티브(대표 김홍준, 박홍준)와 보안전문업체 안철수연구소(대표 안철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를 소개한다.

조사 결과 IT 종사자들이 꼽은 올해의 10대 뉴스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1위), 김대중대통령 노벨상 수상(2위), 의사들의 파업으로 치달은 의약분업 사태(3위), 대기업 퇴출과 경기불안 등 제2의 IMF설(4위), 미 대선 혼선 양상(5위), 상반기 코스닥/벤처 붐(6위), 정현준-진승현 게이트(7위), 인간 지능 프로젝트 발표(8위), 백지영 동

영상 사건(9위), Cnet 등 글로벌 매체에서의 국내 IT 기업 선전(10위)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보면 현대건설·동아건설의 구조조정과 대우자동차의 부도 사태 등으로 인한 제2의 IMF설, 상반기 한국 경제를 주도했던 코스닥/벤처 붐, 정·관계와의 결탁으로 물의를 빚으며 코스닥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정현준-진승현 게이트 등 경제 관련 이슈가 많이 거론되어, 첨단 IT산업 종사자들의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백지영 동영상 사건이 10대 뉴스 중 하나에 들어간 것도 이채롭다. 또한 응답자들은 IT 종사자답게 Cnet 등 글로벌 매체에서 선전한 국내 IT업체 관련 뉴스와 인간 지능 프로젝트를

10대 뉴스에 꼽음으로써 본연의 분야인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부문별로는 서태지 컴백소식이 문화 부문에서, 한국 축구의 몰락이 스포츠 부문에서 가장 주목받은 빅 뉴스로 꼽혔다. 그밖에 홍석천의 커밍아웃 소동, YS의 고대앞 점거사건 등도 10대 뉴스에는 들지 않았으나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의 경기 전망에 대한 설문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과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동수(45%)로 조사돼 올해에도 낙관적인 상황만은 아닐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IT**

李 懸 (동아 사이언스 기자)